

# 퇴계의 귀향길 따라 걸으며, '큰 뜻'을 되새겨 보 다

기사입력 2022-04-05 06:17:51

## 이달 17일까지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 재현' 열려



4일 오후 '제3회 퇴계선생 귀향길 재현 걷기' 행사 참가자들이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이 앞장을 선 가운데 경북궁을 출발해 경북 안동 도산서원으로 향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20여명 참가, 경북궁 사정전서 출발**

**13박 14일 동안 270여km 동행**

**16일엔 퇴계 시비 제막식도 열려**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 “선생은 후학 양성을 위해 한양 떠나

### 학문과 삶을 완성하고 가르침 남겨”

[e대한경제=이경택 기자] “1569년 기사년 음력 3월4일, 간곡히 붙잡는 어린 선조로부터 귀향을 허락받은 선생은 아침 일찍 야대청에서 선조에게 여러 일을 당부하며 특히 ‘태평성대와 명철한 임금에 대하여 경계하시라’고 아뢰었습니다. 태평성대라는 믿음이 야기할 방심과, 명철함에 대한 과신이 빚을 독선을 경계하라는 얘기였죠. ‘퇴계선생 귀향길 걷기’는 그 같은 퇴계의 참뜻을 오늘날 되살려보자는 것입니다.”

4일 ‘제3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 재현’ 행사의 출발지인 경북궁 사정전 앞에서 만난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겸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행사의 의의를 그렇게 설명했다. 마침 이날은 음력으로 3월4일이어서 퇴계 이황(1501~1570년)이 453년전 도성을 떠난 날이기도 하다.

20여명의 참가자들은 갖에 도포 차림으로 김병일 원장이 앞장을 선 가운데 광화문을 통과해 길을 떠났다. 그 뒤로 이번 행사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줄을 지어 따랐는데 금발의 백인 여성도 섞여 있어 이채를 띠었다.

경복궁에서 도산서당까지 선생의 귀향 날짜(음력 3월4~17일)와 노정에 맞춰 걷는다. 남양주를 거쳐 여주, 충주, 단양, 영주 그리고 도산서원이 있는 안동에까지 이르는 퇴계의 귀향길 270여km(이중 충주댐 수몰 지역 30km는 선박 이용)를 13박 14일간 매일 평균 20km를 걷는 여정이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인사를 대신해 상읍례(相揖禮)를 한 후 도산십이곡(퇴계가 안동에서 지은 12수 시조)을 제창한 후 길을 잡는다.

김병일 원장은 퇴계의 귀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도 부여했다.

“선생은 임금과 조정 신료들의 만류에도 선조에게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올린 후 ‘후학 양성’을 위해 한양을 떠납니다. 그리고 물러남으로써 학문과 삶을 완성합니다. 요즘 ‘왜 나를 써 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팽배한 이들에게 이미 행동으로 큰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셈입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선이 한창인 요즘 새겨들을만한 얘기다. 길을 걷는 여정에는 3년전 행사에 참여한 후 인문답사기 '퇴계의 길에서 길을 묻다'(푸른역사 간)를 펴냈던 인문학 전공자들이 동행해 구간별 남아있는 퇴계의 발자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 2회 행사 참가자들은 후기에 "구도의 길을 걸었다" "걸을수록 오히려 심신이 가벼워졌다"는 글을 남겼다. 실제로 길을 걷다 보면 남한강 구간의 아름다운 풍광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각 지역의 역사유적과 문화유산도 만날 수 있다.

퇴계의 귀향길을 따라 걷는 동안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인 16일에는 안동의 유림 및 시민들과 함께 용수사 입구와 노송정, 영지산 입구 지산와사 터에서 퇴계의 시비 제막식도 거행한다.

한편 이날 사정전에는 출발에 앞서 김현모 문화재청 청장, 이배용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단 이사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이 축사를 하며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경택기자 ktleee@dnews.co.kr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경택 기자**

ktlee@dnews.co.kr

-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e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콘텐츠가 '내손안에' e대한경제i